

씨앤에이논술 zoom 학부모설명회

10월 23일(월)
오전 11시

2028(현 중2) 대입제도 개편 발표

수능 통합형 국수사과

내신 5등급제 논서술형 강화



아이디 : 695 045 7173 암호 : 0628

연사 : 대치본원 여성오 원장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대치동독서법, 대치동글쓰기 저자

대일외고, 명덕외고 방과후특강 중

2028 대입제도 개편

현중2부터 국영수사과 신수능 시대!
서술형 평가와 수학만큼 중요해지는 국어, 사회
씨앤에이독서가 답입니다.

내신 5등급제 10% 1등급, 24% 2등급. 내신 과열은 완화

내신 서술형 평가 강화 100% 논술형 평가도 가능한 근거마련

수능국어, 수학 선택 폐지 수학 범위 축소로 진정한 킬러는 국어

수능사회, 과학 모두 응시 진정한 문이과 폐지, 사회 중요성 높아



씨앤에이논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등 저학년은 결국 IB와 논술형 수능
씨앤에이독서가 답입니다.

1 '내신 인플레' 보완책 수능 최저와 면접

내신 10%까지 일등급이면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까요?
수능 최저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 국어와 사탐 강화
MMI면접이나 대학별고사도 염두에 두세요 - 구술과 논술 강화

2 '논술형 수능' 서술형 수능이 방향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결국은 논술형 수능입니다.
IB 교육과정의 도입과 대학별 고사에 대한 장기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실력! 쉬운 공부 가 아닌, 진짜 공부가 필요합니다.



씨앤에이논술



씨앤에이논술 zoom 11월 학부모 설명회

언택트 시대 실시간 입시 및 교육 정보 소통의 장

① ZOOM 비대면 학부모 설명회 ② 씨앤에이논술 전문 강사진

1회차

중등부 프로그램 안내

11.13(월) 11:00

2회차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

11.27(월) 11:00

* 2024~2028 입시변화 PDF 자료 제공



1. Since1998 무지개논술부터 씨앤에이논술까지 대치동 독서 토론 논술 교육 핵심 정보 공유
2.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쌍방향 비대면 플랫폼 ZOOM을 통한 실시간 소통(화면 및 파일 공유)

※ 참석자 분들께

1. 입시 자료 PDF 파일은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2. 참석자 이름은 배움터명+학생이름 또는 전화번호 뒷자리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3. 《메타인지를 위한 초등 독서법》은 각 배움터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씨앤에이논술

씨앤에이논술 zoom 12월 학부모 설명회

언택트 시대 실시간 입시 및 교육 정보 소통의 장

① ZOOM 비대면 학부모 설명회 ② 씨앤에이논술 전문 강사진

1회차

중등부 프로그램 안내

12.11(월) 11:00

2회차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

12.18(월) 11:00

* 2024~2028 입시변화 PDF 자료 제공



1. Since1998 무지개논술부터 씨앤에이논술까지 대치동 독서 토론 논술 교육 핵심 정보 공유
2.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쌍방향 비대면 플랫폼 ZOOM을 통한 실시간 소통(화면 및 파일 공유)

※ 참석자 분들께

1. 입시 자료 PDF 파일은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2. 참석자 이름은 배움터명+학생이름 또는 전화번호 뒷자리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3. 《메타인지를 위한 초등 독서법》은 각 배움터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씨앤에이논술

(주)C&A논술

2024→2025 입시 변화

2022학년도 정시 30% 가이드라인 적용, 선택형 수능
 2023학년도 정시 40%, 서울대 정시 지균전형 도입
 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 과탐 선택 과목 가산점 도입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 79.6%로 최고값(16개대 60%)

2024학년도 344,296명 모집(전년 대비 -4,828명)				
수시 272,032명(79%, 전년 대비 0.97%P 증가)				정시 21%
학생부전형 67.7→67.9%		(실기전형)	논술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수능 위주 서울대 정시 지균 신설 서울대 정시 교과 평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154,349명 44.8%, -367명	79,520명 23.1%, -2,183명	28,054명 8.2%, +890명	11,214명 3.3%, +198명	66,300명 19.3% -3,611명
교과 절대 평가	교과 상대 평가	교과 실질 평가	논술 실력 평가	수능 중심 평가
평점	등수	스펙	논술	수능
1.0등급에 근접	고교등급제 유사	비교과 반영	내신 변별력 ×	내신 변별력 △
스펙 ×	스펙 ×	스펙 ○	스펙 ×	스펙 ×

- 전국 대학 기준 ①교과)②종합)③특기자)④논술 but 10개 대학 기준 ①종합)②논술)③교과)④특기자

2025학년도 340,934명 모집(전년 대비 -3,362명)				
수시 272,481명(79.6%, 전년 대비 0.6%P 증가)				정시 20.4%
학생부전형 67.9→68.6%		(실기전형)	논술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수능 위주 서울대/고려대 교과 평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154,649명 45.4%, +300명	79,107명 23.2%, -413명	27,755명 8.1%, -299명	11,266명 3.3%, +52명	63,827명 18.7%, -2,473명

- 학생별 수시vs정시 전략 및 수시 6회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비교우위 점검 및 관리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3,279명 (정원내 합계 -5명)					
수시 1,973→1,870→1,869명 57%				정시 1,251명	
학생부전형 78.1%→69.9%→60.1%→56.9%→57%			논술전형	38.2% 국수탐 100 120 80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76.8%				특기자
無	지역균형	일반전형	無 수시 기균 159명	無 정시 기균 190명	
2019학년도	756명 23.8%	1,742명 54.7%			증가 후 유지
2020학년도	756명 23.8%	1,739명 54.7%			684명 21.5%
2021학년도	756명 23.8%	1,689명 53.0%			684명 21.5%
2022학년도	664명 20.5%	1,592명 49.2%			736명 21.9%
2023학년도	565명 17.2%	1,408명 42.9%			979명 30.1%
2024학년도	476명 14.5%	1,394명 42.4%			지균130+일반1,179명
2025학년도	478명 14.6%	1,391명 42.4%			지균136+일반1,119명

2022부터 정시 가군→나군 이동, 2023부터 정시 일반전형 1단계 수능 100% 2배수, 2단계 수능80+교과평가20
 2023부터 수시 지균 수능최저 3영역 등급 합7(탐구 평균), 정시 지역균형전형(수능60+교과평가40) 신설(학교별 2명)
 2024부터 수시 지균 1단계 3배수 면접(의대 60분 mmi) 일반전형 1단계 2배수 면접(의대 60분 mmi)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 3,485명 (정원내 합계 +3명)				
수시 1,955명→2,021→2,024명 61.5% (기회균형 185명)				정시
학생부전형 1,477→1,524→1,531명(42.6%)			논술전형	수능 100%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논술 100%	고른 기회 187명
523→472→ 475명 13.6% 고3 정원 5% →10명 추천	1,052명 30.4%		158명 4.5%	335명
	활동우수형	국제형	2021학년도부터 어문학/과학인재 폐지 국제인재 228→124→120명 체육인재 38명	9.6%
	540→568→ 615명	274→274→ 256명		수능최저 폐지
18.7%	7.3%	내신 미반영	의예과 2.5배수 제시문 기반 및 인적성 면접	

2025부터 수시 추천형 면접 폐지, 일괄합산, 활동우수형 1단계 인문3배수 자연4배수,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복수지원 X
 추천형+활동형 수능최저 국수탐(2) 인문 2합4, 자연 2합5(수학 포함), 의치약1등급2개(국수 중 1개 포함), 영어3등급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3,885명 (정원내 합계 -4명)				
수시 2,238명(고른기회 181명 제외) 62.3%				정시
학생부전형(교과15.8%+종합30.2%)			논술전형	37.7%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농어촌 등 244명
교과80+서류20 871→666→ 615명 15.8% 4%→12명 추천(현역) 면접 X	학업우수형		특기자전형	2018 폐지 2025 부활 344명 8.9% 논술 100%
	897→970→771명 24.9→19.8%	계열적합형	70→55명 1.8→1.4%	
	1단계 5배수에서	1단계 5배수	(고른 181명)	교과우수전형 427→432명
	2025 면접 폐지	제시문 면접	면접 40%	일반전형 1,037→1,034명

2024 계열적합형 의과대학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을 복수의 고사실에서 시행, 2025 논술 최저 4합8(경영만 4합5) 탐1

12. 2023학년도 정시 예상합격선(가채점)

1. 주요대 학과별 정시 합격선(국수탐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2과목 각 50점 합산 기준

대학	계열	학과 및 학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전년대비 증감
경희대	인문	경영	248	259	11
	자연	의예	284	289	5
	자연	한의예	268	277	9
	자연	약학	265	272	7
고려대	인문	경영대학	280	281	1
	인문	경제학과	280	281	1
	인문	영어영문	265	272	7
	자연	의과대학	289	292	3
	자연	사이버국방	266	272	6
	자연	반도체공학과	265	271	6
동국대	인문	경찰행정학과	242	255	13
	자연	약학	263	270	7
서강대	인문	경영학부	263	268	5
	인문	인문학부	254	263	9
	자연	시스템반도체공학과	-	267	-
	자연	화공생명공학과	260	264	4
서울대	인문	경영대학	286	288	2
	인문	정치외교	285	286	1
	인문	국어교육	281	282	1
	자연	의예	291	294	3
	자연	약학	276	281	5
	자연	화학생명공학부	274	280	6
성균관대	인문	글로벌경영	265	270	5
	인문	사회과학계열	257	265	8
	자연	의예	289	292	3
	자연	약학	266	274	8
	자연	반도체시스템공학	263	269	6

대학	계열	학과 및 학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전년대비 증감
연세대	인문	경영	280	281	1
	인문	정치외교	276	279	3
	인문	영어영문	270	274	4
	자연	의예	290	293	3
	자연	치의예	278	285	7
	자연	약학	268	275	7
	자연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6	272	6
이화여대	인문	인문계열	246	257	11
	인문	의예과(인문)	283	287	4
	자연	자연계열	257	263	6
	자연	의예과	282	287	5
	자연	약학	265	272	7
중앙대	인문	경영학	255	263	8
	인문	공공인재학부	252	261	9
	자연	의학부	284	289	5
	자연	약학	266	273	7
	자연	기계공학	258	263	5
	자연	AI학과	258	264	6
한국외대	인문	LD학부	251	260	9
	인문	ELLT학과	246	255	9
한양대	인문	정책	257	264	7
	인문	경영학부	254	262	8
	자연	의예	284	289	5
	자연	반도체공학과	-	267	-
	자연	미래자동차공학	263	266	3
	자연	데이터사이언스학부	262	265	3

2. 권역별 정시 지원 가능선

1) 2022학년도

(1) 인문

구분	대학	학과	국수탐원점수	국수탐백분위	영어등급
SKY	고려대	한문학과	262	281	1
주요15개대	동국대	문화재학과	240	258	2
인서울	서경대	아동학과	202	204	3
수도권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155	143	4
지거국	경상국립대	스마트유통물류학과	144	130	4

(2) 자연

구분	대학	학과	국수탐원점수	국수탐백분위	영어등급
SKY	고려대	간호대학	262	285	1
주요15개대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248	274	1
인서울	삼육대	동물자원과학과	206	225	2
수도권	화성의과학대	생명과학과	173	178	3
지거국	경상국립대	원예과학부	167	168	3

2) 2023학년도

(1) 인문

구분	대학	학과	국수탐원점수	국수탐백분위	영어등급
SKY	고려대	한문학과	265	280	1
주요15개대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240	250	1
인서울	서경대	아동학과	200	195	2
수도권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153	140	4
지거국	경상국립대	스마트유통물류학과	145	133	4

(2) 자연

구분	대학	학과	국수탐원점수	국수탐백분위	영어등급
SKY	고려대	간호대학(A형)	266	284	1
주요15개대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255	276	2
인서울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209	217	3
수도권	화성의과학대	의생명과학과	168	162	4
지거국	경상국립대	스마트농산업학과	184	186	4

3) 2023 정시 의치한, 약대, 서연고 자연계열 합격점수 예측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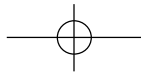
※ 국수탐 원점수 기준(국어, 수학, 탐구2과목 합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서연고 일반학과		
283.9		276.3		272.1		270.2		270.8		
대학명	원점수	대학명	원점수	대학명	원점수	대학명	원점수	대학명	학과명	원점수
서울대	294	서울대	286	경희대	277	서울대	281	서울대	수리과학부	284
연세대	293	연세대	285	가천대(글로벌)	274	연세대	275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283
가톨릭대	292	경희대	280	상지대	274	성균관대	27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83
고려대	292	단국대(천안)	275	부산대	272	중앙대	273	서울대	수외예과	282
성균관대	292	경북대	275	동국대(WMSE)	271	가천대(메디컬)	272	서울대	기계공학부	280
울산대	292	부산대	275	대구한의대	271	경희대	272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280
가천대(메디컬)	289	강릉원주대	274	대전대	271	이화여대	272	서울대	물리학전공	279
경희대	289	원광대	274	동신대	271	고려대(세종)	270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279
아주대	289	전남대	274	동의대	271	덕성여대	270	...		
중앙대	289	조선대	271	세명대	271	아주대	270	서울대	통계학과	277
한양대	289	전북대	270	우석대	271	한양대(에리카)	270	서울대	산업공학과	277
이화여대	287			원광대	271	가톨릭대	270	서울대	생명과학부	277
인하대	286					단국대(천안)	270	...		
경북대	285					동국대	270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274
부산대	285					동덕여대	270	서울대	천문학전공	273
순천향대	285					삼육대	270	서울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273
한림대	285					숙명여대	270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273
단국대(천안)	283					경상국립대	270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272
동국대(WMSE)	283					부산대	270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72
연세대(미래)	283					전남대	270	...		
동아대	283					전북대	270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271
인제대	283					충남대	270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271
전남대	283					충북대	270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71
충남대	283					강원대	269	...		
건국대(글로벌)	282					경북대	269	연세대	기계공학부	269
전북대	281					계명대	269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269
계명대	280					대구가톨릭대	269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269
대구가톨릭대	280					영남대	269	고려대	기계공학부	269
영남대	280					인제대	269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269
울지대	280					제주대	269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269
충북대	280					조선대	269	...		
강원대	277					차의과학대	268	연세대	대기과학과	267
경상국립대	277					목포대	268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267
제주대	277					순천대	268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267
건양대	277					우석대	268	고려대	식품공학과	267
가톨릭관동대	277					원광대	268	...		
원광대	277					경성대	266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자연)	266
조선대	277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266
고신대	275									

3. 2023 서울대 고교별 등록실적(베리타스알파)

*자료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순서 = 합계 / 이름 순

순위	고교명	합계	수시	정시	지역	시도	고교유형
1	서울과고	77	55	22	서울	종로구	영재학교
2	외대부고	60	24	36	경기	용인시	자사고(전국)
3	경기과고	57	46	11	경기	수원시	영재학교
	하나고	57	42	15	서울	은평구	자사고(전국)
5	대원외고	53	28	25	서울	광진구	외고
6	대구과고	43	37	6	대구	수성구	영재학교
	세희고	43	3	40	서울	서초구	자사고(광역)
	휘문고	43	3	40	서울	강남구	자사고(광역)
9	광주과고	38	38	0	광주	북구	영재학교
10	인천영재	33	32	1	인천	연수구	영재학교
11	세종영재	32	31	1	세종	세종시	영재학교
12	상산고	28	4	24	전북	전주시	자사고(전국)
	중등고	28	2	26	서울	강남구	자사고(광역)
	한국영재	28	25	3	부산	부산진구	영재학교
15	대전과고	27	26	1	대전	유성구	영재학교
	민사고	27	21	6	강원	황성군	자사고(전국)
17	한영외고	26	19	7	서울	강동구	외고
18	대일외고	25	25	0	서울	성북구	외고
19	낙생고	24	1	23	경기	분당구	일반고
20	선덕고	23	7	16	서울	도봉구	자사고(광역)
	속명여고	23	6	17	서울	강남구	일반고
22	단대부고	22	7	15	서울	강남구	일반고
	포항계철고	22	13	9	경북	포항시	자사고(전국)
24	보인고	21	4	17	서울	송파구	자사고(광역)
25	경기고	20	3	17	서울	강남구	일반고
	복일고	20	12	8	충남	천안시	자사고(전국)
27	배재고	18	5	13	서울	강동구	자사고(광역)
	세마고	18	1	17	경기	오산시	일반고
29	공주시대부고	17	15	2	충남	공주시	일반고
	명덕외고	17	14	3	서울	강서구	외고
	상문고	17	5	12	서울	서초구	일반고
	한성과고	17	13	4	서울	서대문구	과고
33	영동고	16	8	8	서울	강남구	일반고
34	세화여고	15	5	10	서울	서초구	자사고(광역)
	신성고	15	1	14	경기	안양시	일반고
	안산동산고	15	8	7	경기	안산시	자사고(광역)
	화성고	15	1	14	경기	화성시	일반고
38	고양국제고	14	14	0	경기	고양시	국제고
	안양외고	14	14	0	경기	안양시	외고
	운정고	14	4	10	경기	파주시	자공고
	은광여고	14	7	7	서울	강남구	일반고
43	현대고	14	4	10	서울	강남구	자사고(광역)
	대건고	13	5	8	대구	달서구	자사고(광역)
	대전외고	13	8	5	대전	서구	외고
	분당중앙고	13	1	12	경기	분당구	일반고
	세종과고	13	11	2	서울	구로구	과고
	중산고	13	2	11	서울	강남구	일반고
49	한일고	13	7	6	충남	공주시	일반고
	강서고	12	0	12	서울	양천구	일반고
	명덕고	12	1	11	서울	강서구	일반고
	용산고	12	4	8	서울	용산구	일반고
	한민고	12	12	0	경기	파주시	일반고



순위	고교명	합계	수시	정시	지역	시도	고교유형
53	과천외고	11	11	0	경기	과천시	외고
	김천고	11	9	2	경북	김천시	자사고(전국)
	동탄국제고	11	6	5	경기	화성시	국제고
	반포고	11	5	6	서울	서초구	일반고
	분당대진고	11	1	10	경기	분당구	일반고
	양서고	11	3	8	경기	양평군	일반고
	인천포스코고	11	11	0	인천	연수구	자사고(광역)
	잠신고	11	2	9	서울	송파구	일반고
	진선여고	11	1	10	서울	강남구	일반고
	충남삼성고	11	11	0	충남	아산시	자사고(광역)
현대청운고	11	2	9	울산	동구	자사고(전국)	
65	개포고	10	4	6	서울	강남구	일반고
	경기북과고	10	7	3	경기	의정부시	과고
	고양외고	10	10	0	경기	고양시	외고
	대전대성고	10	7	3	대전	중구	자사고(광역)
	대전여고	10	3	7	서울	노원구	일반고
	동화고	10	5	5	경기	남양주시	일반고
	서울고	10	5	5	서울	서초구	일반고
	신일고	10	3	7	서울	강북구	자사고(광역)
	와부고	10	3	7	경기	남양주시	일반고
	이화여고	10	5	5	서울	중구	자사고(광역)
한가람고	10	4	6	서울	양천구	자사고(광역)	
77	경기여고	9	3	6	서울	강남구	일반고
	경기외고	9	7	2	경기	의왕시	외고
	경남과고	9	9	0	경남	진주시	과고
	광양제철고	9	8	1	전남	남해군	일반고
	남해해성고	9	8	1	경남	남해군	국제고
	서울국제고	9	6	3	서울	종로구	국제고
	서초고	9	3	6	서울	서초구	일반고
	성남외고	9	8	1	경기	성남시	외고
	신북고	9	3	6	서울	양천구	일반고
	인천국제고	9	7	2	인천	중구	국제고
	인천하늘고	9	6	3	인천	중구	자사고(전국)
	청심국제고	9	8	1	경기	가평군	국제고
청원고	9	4	5	충북	청주시	자공고	
90	대전고	8	8	0	대전	중구	자공고
	보성고	8	1	7	서울	송파구	일반고
	부산과고	8	6	2	부산	금정구	과고
	부산일과고	8	7	1	부산	사하구	국제고
	분당고	8	3	5	경기	분당구	일반고
	영동일고	8	3	5	서울	송파구	일반고
	에일여고	8	6	2	서울	은평구	일반고
	포산고	8	6	2	대구	달성군	자공고
한영고	8	5	3	서울	강동구	일반고	
100	경희고	7	7	0	서울	동대문구	자사고(광역)
	김포고	7	1	6	경기	김포시	일반고
	대덕고	7	5	2	대전	유성구	일반고
	병점고	7	0	7	경기	화성시	일반고
	서울외고	7	6	1	서울	도봉구	외고
	세종국제고	7	6	1	세종	세종시	국제고
	수원의고	7	5	2	경기	수원시	외고
	양재고	7	3	4	서울	서초구	일반고
	중앙고	7	4	3	서울	종로구	자사고(광역)
	창원과고	7	7	0	경남	창원시	과고
창현고	7	4	3	경기	수원시	일반고	
태원고	7	5	2	경기	성남시	일반고	
계(111교)	1809	993	816	-	-	-	

배포 2023. 10. 9.(월)

보도시점 (인터넷) 2023. 10. 10.(화) 15:00
(지 면) 2023. 10. 10.(화) 15:00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 교육부, 미래 사회 대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
-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 해소
- 내신에 논·서술 평가를 늘려 사고력·문제해결력 키울 것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0일(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 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지구과학 I(33.7%) vs 물리학Ⅱ(0.6%), 생활과 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3.2)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대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 22%, 외고 48%, 과학고 59%, 자사고 33%(평가원, '22.)

** 고1 학업중단율(일반고) ('20.) 1.5% → ('22.) 2.3%,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19.) 1.9% → ('24.) 3.6%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3.9)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3.)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하였다.

①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제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제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붙임1】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참조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②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장한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③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4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예정(잠정, 11월 20일 14:00, 서울 여의도 인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8 수능 개편안 요약
 2.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QnA

【별첨】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담당 부서 <총괄>	인재정책실 인재선발제도과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3-6885)
		담당자	사무관	이가원 (044-203-6890)
담당 부서 <고교 내신>	책임교육정책실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730)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승환 (044-203-6743)
담당 부서 <고교학점제>	책임교육정책실 교육과정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한승 (044-203-6715)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수나 (044-203-6716)

붙임 1

2028 수능 개편안 요약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p>공통 + 2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독서, 문학 •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p>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p>
수학	<p>공통 + 3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수학 I, 수학 II •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p>공통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p>
영어	<p>공통 (영어 I, 영어 II)</p>	<p>공통 (영어 I, 영어 II)</p>
한국사	<p>공통 (한국사)</p>	<p>공통 (한국사)</p>
탐구	<p>17과목 중 최대 택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 8과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공통 (통합사회) • 과학: 공통 (통합과학)
	<p>1과목: 5과목 중 택 1 2과목: 공통 + [1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농업 기초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 /한문	<p>9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p>9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추가 검토안</p> <p>10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 심화수학: 1과목 (미적분 II +기하) </div>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 **학부모 대상 FGI 결과**(‘23.9월말)

- ※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수도권(6인)·비수도권(5인) 학부모 대상
-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선호가 반영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은 기대되나, **교사 역량·시설 확충 등 실제 운영상의 우려** 존재
 - ※ (수도권) 학점제 과목은 대학·학과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
- (내신 평가) 절대평가 시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나, **학력 저하 및 내신 부풀리기, 상대평가 적용 고1 부담 편중 가능**
 - ※ (비수도권) 특목고 등 내신 성적의 불리함이 사라지는 경우,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 (통합형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범위로**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하며**, 이때 **변별력 확보는 필수라** 생각
- (논·서술형 수능) 선다형은 정답 찍기 문제가 있지만, **채점 기준의 공정성 논란, 사교육 과열 등으로 ‘수능’ 논·서술형 도입 회의적**
 - ※ 논·서술형이 학업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

□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3.9월말~10월초)

- (항목별 동의율*) ①수능 통합형 과목체제 **73.0%**, 통합사회·과학 **61.2%**, 심화수학 41.8%, ②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88.6%**, 5등급제 **76.6%**
 - *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응답 비율
- (총평) 위 항목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416명), ‘**긍정적**’(680명) → **긍정 응답이 87.0%**
 - ※ 매우 긍정적 416명(33.0%), 긍정적 680명(54.0%), 부정적 124명(9.9%), 매우 부정적 39명(3.1%)

학부모 의견	① 수능 개편			② 고교 내신 개편	
	통합형 과목체제	사회·과학 통합	심화수학 출제	절대·상대평가 병기	5등급제 전환
동의	595 (47.3%)	407 (32.4%)	242 (19.2%)	700 (55.6%)	587 (46.6%)
어느 정도 동의	324 (25.7%)	363 (28.8%)	284 (22.6%)	416 (33.0%)	377 (30.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4 (15.4%)	267 (21.2%)	389 (30.9%)	68 (5.4%)	160 (12.7%)
동의하지 않음	146 (11.6%)	222 (17.6%)	344 (27.3%)	75 (6.0%)	135 (10.7%)
합 계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 학부모 총 1,259명 설문 응답

1.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가 무엇인가요?

- 모든 학생들이 수능 국어·영어·수학과 사회·과학탐구에서 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체제입니다.
- 이제까지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에 여러 선택과목이 있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 유희리가 나타나고 복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간소화된 알기 쉬운 수능이 됩니다.

2.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 이번 시안에서 발표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로, 과목 구조로 인해 특정 학생에게 유희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어·수학·영어는 바뀐 교육과정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 사회·과학은 현재의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이제까지 개별 사회·과학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출제해 왔다면, 2028 수능은 통합적 내용으로 출제하게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집니다.

3.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새로워 보여요.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까요?

-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 통합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 건강한 수능과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예시문항을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5. 수능에 경제, 정치, 물리학, 화학 과목들을 출제해야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 지금처럼 일부 과목만 선택해서 수능을 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특정 과목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능에서 물리학Ⅱ, 경제 등을 출제하고 있음에도 선택한 비율은 0.5~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사회·과학의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본개념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도 더욱 심화된 내용은 수능 부담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는 대학의 학생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심화수학이 도입되나요? 추가 검토안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심화수학 도입여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7. 심화수학은 필수인가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나요?

- 아닙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만으로도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적습니다.

8.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합니다.

9.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 대입제도는 안정과 공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수능 출제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서 정하면 역량 있는 출제위원이 제외될 수도 있지 않나요?

- 아닙니다. 수능 출제위원은 이미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위원풀 안에서만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이권 카르텔은 근절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것입니다.

11.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21년에 예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방식대로 '고1 9등급 상대평가 + 고2·3 전면 5등급 절대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 예고한 바와 같이 학년별로 내신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고1 내신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고2·3 성적은 부풀려져서 변별력을 잃는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9등급제는 1등급(4%)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학교나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은 소인수과목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같이 고1~3 일관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를 하면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를 함께 대입에 활용하면, 공교육 파행을 막고 내신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나요?

-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는 9등급제가 유지됩니다.
- 또한, 수능과 내신은 다릅니다.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3. 내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 아닙니다. 2021년에 예고했던 고1 상대평가, 고2·3 전면 절대평가 방식에 비해 대입 변별력은 훨씬 강화됩니다.
-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학생이 고교 3년간 배우게 되는 과목 수가 전체 50여 개임을 고려하면 대입 변별력은 충분합니다.

14.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대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합니다.
-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15.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아닙니다. 2021년에 예고한 내신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각하게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번 시안은 고교 전 학년 5등급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과잉 사교육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논·서술형 평가, 절대평가 강화 등 내신 평가의 혁신으로 암기·반복훈련 위주의 문제풀이식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16. 고교 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나요?

-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대학은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면 절대평가 성적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7. 내신 논·서술형 평가는 공정한가요?

-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5지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위주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교사연수,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수능에는 논·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건가요?

-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확정인가요?

- 아닙니다. 아직 시안(試案)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11월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20. 2028 대입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안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과제가 있어 신속히 확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2023. 10.

교 육 부

목 차

I. 추진 배경 및 방향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5
① 통합형·융합형 수능과목체제로 개편 ...	5
② 이권 카르텔 근절	7
③ 고교 대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8
④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9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10
IV. 향후 로드맵	11

-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2. 그간의 경과
3. 내신 평가방식 및 대입제도 해외사례
4.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 추진 배경 및 방향

□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는 수능과 내신

-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 대입의 핵심은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학생부), 두 개의 큰 축이 학생의 미래 대비와 대학의 인재 선발을 균형있게 지원할 필요

□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

-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 수능시험에서 그동안 제기된 불공정을 개선하여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 필요
* 지속 강조 필요한 고등교육정책 1순위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5%)(2022 KEDI POLL)
- 미래사회에서는 통합적·융합적 인재가 필요, 수능의 교육적 위상을 고려하여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수능체제 검토
- 정부는 수능 개편을 통해 공정평가 기반 확립 및 교육개혁 유도

□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 혁신 필요

-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21.2)되어, 학점제로 공부하여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現 중2)의 고교 내신에 대해 검토
-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위해 과거 학점제 추진계획('21.2) 상 내신 평가방식을 유지한 바 있으나, 내신평가에 대한 우려 지속*
* 고1 사교육 내모는 학점제('23.8.15. 파이낸셜), 고2-3 절대평가...특목고 쓸림 우려('23.6.21. 채널A)
- 교실수업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23.2)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내신평가의 혁신 속도는 다소 지연

◆ (수능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융합적 교육을 유도

◆ (고교 내신) 교육개혁·교실수업 혁신에 발맞춰 내신 평가방식 혁신

II. 현황 및 문제점

□ 분절적 과목 체계로 인한 불공정 유발 및 통합·융합교육 저해

- (수능 선택과목 불공정) 기존의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적성·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저해
 - 경제·물리학 등 다양한 과목보다는 높은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들로 쏠림* 유발
 - * 지구과학 I(33.7%) vs 물리학Ⅱ(0.6%), 생활과 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3.2)
 -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어, 학생·학부모 혼란 및 불공정하다는 인식 확산
 - ※ 고교 교사 36%, 수능에서 '국어·수학 선택과목' 수정·보완 필요 응답('23. 대입정책 의견조사)
 - ※ 실력과 관계없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피해...유리한 과목에 쏠릴 것(학부모 FGI, '23.9)
 -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유지할 경우, '25년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적극 권장하는 학점제 하에서 수능 유·불리 논란이 심화 예상
- (과도한 고교 내신과목 쪼개기) '2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학년' 기준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과목이 잘게 세분화*
 - * 예시 : (현행) 물리학Ⅱ(1과목) → (2022 교육과정)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2과목)
 - 개별 과목만으로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통합적·융합적 사고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이 곤란
 - 세분화된 고교 교육과정을 수능 과목에 반영 시, 학생·학부모 과목선택 혼란 및 출제·관리 상 안정적 운영에도 한계
 - ※ 수능만큼은 공통으로 공정하게 시험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수능 과목을 계속 쪼개고 나눠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진 느낌(학부모 FGI, '23.9)

⇒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적·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 과목체계 재구조화 검토

□ 수능 시험에 사교육 카르텔 침범,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사교육 유착) 학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그간 킬러문항 출제, 과거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 등 카르텔 확인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23.9.19.),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 확인된 수능 출제 관련자 24명 고소 및 수사의뢰

-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카르텔 소지를 원천 차단할 필요

⇒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카르텔·부조리를 철저히 근절 추진

□ 9등급제 기반의 학점제 도입 시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 예상

※ 기 예고(21.2) : '25년부터 고1(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 고2·3(선택과목) 전면 절대평가(성취평가)

- (학년별 다른 평가방식) 고1과 고2·3 각각 내신 평가방식이 달라,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 발생

- 심화내용을 배우는 고2·3은 '성적 부풀리기*'로 내신 변별력 저하, 대입에서 학생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고1 내신에 영향 집중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 22%, 외고 48%, 과학고 59%, 자사고 33%(평가원, '22.)

- 고1 내신 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2·3 수업 참여 동기 상실, 수능 준비를 위한 학업중단(자퇴)이 가속화될 우려*

* 고1 학업중단율(일반고) ('20.) 1.5% → ('22.) 2.3%,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19.) 1.9% → ('24.) 3.6%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3.9)

- (교실 황폐화 9등급제) 학령인구 감소로 1등급(4%) 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내신 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

- 9등급제는 교실 내 소모적 경쟁과 이로 인한 과잉 사교육을 유발* 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협업능력·공동체의식과 상충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고1) 49.1 > (고2) 47.0 > (고3) 41.9('22. 사교육비조사)

- '1등급'이 안 나오는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와 적성·흥미를 고려한 소인수과목은 원천적으로 내신 불리 → 특정 학교·과목 소외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3.)

- (대입전형 연계 미흡) 내신이 학생의 고1~3 시기 노력과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면 대학은 고교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에 한계*

* 교사.입학사정관, 내신 절대평가 시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곤란 예상(정책연구 FGI, '22.12)

⇒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예상되는 2025년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끄는 교육 혁신을 위해 내신 평가방식 재검토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신 평가방식은 교육개혁과 잇박자

- (舊시대적 평가체제)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내신 9등급제와 고1과 고2·3이 다른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는 전 세계에 全無

- 세계 주요국 대부분 5등급제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내신에서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등 열린 논·서술형 평가 지향

※ 우리나라는 시도별 고교 논·서술형 평가 권장 비중 20%~35% 수준에 불과(22.)

※ 논·서술형 문항이 학업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학교에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걱정(학부모 FGI, '23.9)

- (교육개혁에 역행) 현재 교실수업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방안('23.2.),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등

- 아날로그 시대의 9등급제, 5지선다형 평가는 사교육 반복학습을 유발해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혁신에 역행

⇒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 혁신과 더불어 평가 혁신이 중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신 등급체계 및 평가문항구조 검토

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1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 ◆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 ◆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 유도

-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
 -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 현행 수능과 학습량 동일(고교수업 기준 8과목)
 - * (국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I·II

-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II+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

-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 * 2개 모두 응시.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
 -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 유지
 - ※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하되, 모든 전공 공통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출제

- ◇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 ◇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 EBS 연계는 현행 유지(50% 간접 연계) : 연계 체감도가 높은 출제로 공교육 및 EBS 중심 수능 준비 지원

<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p>공통 + 2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독서, 문학 •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p>공통</p> <p>(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p>
수학	<p>공통 + 3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수학 I, 수학 II •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p>공통</p> <p>(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p>
영어	<p>공통</p> <p>(영어 I, 영어 II)</p>	<p>공통</p> <p>(영어 I, 영어 II)</p>
한국사	<p>공통</p> <p>(한국사)</p>	<p>공통</p> <p>(한국사)</p>
탐구	<p>17과목 중 최대 택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 : 8과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p>1과목 : 5과목 중 택 1</p> <p>2과목 : 공통 + [1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 농업 기초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 /한문	<p>9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p>9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추가 검토안</p> <p>10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 심화수학 : 1과목 (미적분 II +기하) </div>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2 이권 카르텔 근절

◆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관리 소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

	현행	→	개선
① 위원풀 구성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자격기준 강화
② 위원 선정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 ▪ 인위적 개입 가능성 존재 	→	선정 전 과세정보 확인 무작위 추첨 선정
③ 출제 이후	'참여경력 노출'만 금지	→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 **(위원풀 구성)**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 강화

※ 자격기준 등을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 관리 강화('23.12, 수능 관리규정 제정)

○ **(위원 선정과정)** 출제·검토위원 선정 시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학연·지연·친분 등 카르텔 개입 예방

-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확인***('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 **(출제 이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을 위해 **교육부 內 전담팀** 운영('23.下~, 기존 관련 대책팀과 통합 운영)

◇ 고의적·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 발생 시,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23.下~,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

◆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상대평가 병기)

○ **(등급 구분기준 개선)**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 →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 고1 '내신 전쟁' 및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로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 유도

-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 체제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를 반영해 학교·과목 유·불리 해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A~E 등 5등급, (영국) A(+)-E 6등급 등

○ **(소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예체능 등 제외)

-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 방지, 공정성 확보

-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며, 대학에 다양한 성적·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 지원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안) >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A·B·C·D·E	5등급	○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A·B·C·D·E	5등급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과목은 석차등급 미산출

4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 ◆ 미래사회 대비,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
 - ◆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 ◆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 **(다양한 평가방식 확산)**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5지선다형)는 지양,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 * (현행) 내신 논·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 미미 → (개선)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절대평가 안착 지원)** 개인별 성취수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를 지속 내실화**
 - 교육과정 과목별 구체적인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표준화한 국가 수준 평가기준** 개발·보급(~'24.上)
 - 국가· 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전체 고교의 평가현황 점검**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24.上~)
 - 교과별 수업 및 **평가 운영계획·방법** 등 **정보공시 상세화**
 - * (현행) 교과별 최소한의 평가계획 제공 → (개선)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방법 등 상세 정보에 대해 **공시** (~'23.1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서식 개발)
 - **(全体教师 역량강화)** 모든 고교 교사의 **혁신적 평가역량 확보**(24.~'25.)
 - 집중적으로 양성된 **수업·평가 전문성이 높은 핵심·선도교원** (3,000여명)이 **1인 1고교** 전담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 진행
 - **교사 연구대회·학습공동체** 등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가방식 고도화** 촉진*
 - *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활성화, 에듀테크·수업평가 연구회 등 지원(~'27. 840개)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 **통합형 수능 도입과 함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고교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학생·학부모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

※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88.6% 동의, 5등급제 76.6% 동의,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동의 등 시안 내용에 대해 긍정 기대(온라인 설문조사, '23.10)

-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
- 고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수능 융합평가로 연결 → 학교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
- 고1 내신이 불만족스러워도 고2·3 때 만회·재도전 가능, 고1 과잉 내신전쟁 방지 → 9등급제로 인한 지나친 내신 사교육 경감
- 친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부담 완화 → 미래 사회 역량인 협업 능력·공동체의식 함양, 인성과 학업능력이 조화된 전인적 발달

□ **고교·교육청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과목 간 유·불리 완화 →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과목으로의 쏠림 해소, 안정적인 학교 운영
- 고1~3 일관된 평가로 학생들의 고1 이후 대거 학업중단(자퇴) 또는 수능 집중 현상을 방지해 면학분위기 유지, 공교육 정상화

□ **대학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

- 수시·정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생부교과전형 등 현행 대입전형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 → 대학 혼란 최소화
- 다양한 내신정보(절대·상대등급) 제공 → 대학의 평가 자율성 확대
- 고교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원활히 적응

IV. 향후 로드맵

□ 2028 대입개편 시안 논의 · 확정

- 대입개편 세부내용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 대국민 공청회 개최 예정(잠정, 11.20. 14:00 서울 여의도 인근)
-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 확정

□ 대학 혁신 등을 반영한 대입 개선의 단계적 모색

- 대학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가칭)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운영('24.上~)
* 대학의 벽 허물기(학생 중심의 전공체계),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 정부는 협의회가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
- AI를 통한 공공 차원의 대입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기반 원서접수 개선, 수능학습 지원 등 다양한 과제도 발굴('24.上~)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미래형 대입제도 구상 · 논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수립* 시(~'25.3), 대학입시제도 등 중장기 발전방향 포함
* 일정(안) : 미래세대 가치-키워드 발굴, 교육비전 및 방향 설정(~'24.3) →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초안) 수립(~'24.9) →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수립(~'25.3)
-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내신 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선진적 대입기반 구축 지원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안하는 대입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 □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따른 수능 출제과목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공통수학1 공통수학2 기본수학1 기본수학2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II,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 I, 영어II,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러시아어 회화, 아랍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중국어, 심화 일본어, 심화 러시아어, 심화 아랍어, 심화 베트남어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베트남 문화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확정**(’22.5)
 - ※ [82-1]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대입 개편,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 역할 강화,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
 - ※ [82-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성취평가제 및 미이수제 내실화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점검 TF 운영**(총 5회, ’22.7~’22.11)
 - ※ 교장·교사, 교수, 입학사정관 등 현장 전문가(12명) 대상 학점제 주요 제도 점검
- **대입정책자문회의 구성·운영**(총 5회, ’22.8~’23.10)
 - ※ 고교·대입 관계자, 언론, 학계·기업 등 전문가(21명)가 바람직한 대입방향 자문
-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및 토론회 개최**(총 3회, ’22.8~’22.10)
 - ※ (’22.8.11.) 평가 및 책임교육 / (’22.8.26.) 대입전형 / (’22.10.13.) 소규모학교 지원
-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총 3회, ’23.2~6)
 - ※ 교육청, 교사 등 현장 전문가, 대학 입학사정관 등 참여 대상별 종합 의견 정리
- **대입제도 개편 시안 개발 정책연구 시행**(’22.10~’23.7)
 - ※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고교 교사 대상 FGI 등 의견수렴 포함
- **대입개편 전문가포럼 개최**(총 4회, ’22.10~’23.2)
- **대입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시행**(’22.11~’23.2)
 - ※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대상 대학입시 인식 파악(총 8,808명 참여)
- **내신 공통과목 점수체제 정책연구 시행**(’23.4~5)
 - ※ 교육청, 교사, 대학 입학처장·교수, 학부모 대상 설문·FGI 포함
- 「사교육 경감대책」 및 ‘킬러문항 사례’ 제시를 통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추진방향 발표(’23.6.26.)
- **학부모 대상 FGI 및 사전 설문조사 시행**(’23.9~10)
 - ※ 2028 대입의 당사자인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

- (미국) 고교 내신 평가방식은 주(state)별, 학구(district)별, 과목별, 교사별로 매우 다양하며, 대입도 대학마다 고유한 방식 채택
 - 대학들은 SAT·ACT 시험 점수, 고교 내신, 에세이·추천서 등을 주로 평가해 왔으나, 최근 SAT·ACT 미반영 대학 증가 경향*
 - * (주요 원인) 시험 점수가 실제 대학 적응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며, SAT 등은 연 7~8회 치러지므로 부유한 학생은 반복 응시해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비판
 - 대학의 방침 변화에 따라 SAT도 핵심 지식 위주로 평가하고 문항 수를 줄여 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방향으로 변화 추세
- (일본)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 5등급(A~E) 적용되나, 보통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사립대학의 학교장 추천전형 위주로 활용
 - 국가수준 대입 시험은 30년간 실시된 '센터시험'을 폐지('20.)하고 사고력·판단력·표현력 중심의 '대학입학 공통테스트'*로 개정
 - * 당초 논술형 문항 도입 예정이었으나, 민간사업자에게 채점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채점자의 질 확보, 채점기준 타당성, 일정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연기 결정
- (프랑스) 대입에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 60%, 고교 내신 40% 반영, 고교 내신이 '공통 시험'과 '학생부'로 구분
 -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 시험'은 고교 2~3학년 때 치르며, 학교별 시험인 '학생부'보다 대입 반영비율 높음(공통 시험 30%, 학생부 10%)
 - '바칼로레아' 개편으로 계열 구분(문학, 경제·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응시 과목 수도 개인차가 없게 5개로 축소(계열별 10~15개→5개)
- (중국) 대부분 내신 절대평가 4등급(A~D) 적용*되나, 통상 대입은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가 가장 중요
 - * 학교가 아니라 성(省) 단위의 학업능력고사로 평가, 안휘성(省)은 상대평가 4등급
 - '가오카오'는 영어·수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800자 이상 논술형 평가 실시, 지역(省) 교육평가원 및 지정 대학에서 나누어 채점

< 각국의 내신 평가방식 요약 >

국가	고교 내신 평가방식		대학 제공 (대입 반영)	비고
미국	5등급 (A~E) ※ E: 과락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예: A=4, B=3 등으로 GPA 환산) 	주(state)마다 평가방식 다양
일본	5등급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한 대학의 학부·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평균성적(GPA) 	고교 내신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입전형이 한정적
프랑스	5등급 (약간 우수, 우수, 매우 우수 등)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2~3학년 과목 성적의 학년별 평균성적 	
홍콩	5등급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3단계 세분화 (A⁺⁺, 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호주	5등급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점수로 환산 수강 과목 중 우수한 성적 4개 제출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영국	6등급 (A ⁺ ,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점수로 환산 A등급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세분화(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중국	4등급 (A~D)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학교가 아닌 지역(省) 단위의 내신 성적 (학업능력고사), 일부 지역은 상대평가 시행

붙임 4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대상 FGI 결과('23.9월말)

- ※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수도권(6인)·비수도권(5인) 학부모 대상
-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선호가 반영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은 기대되나, 교사 역량·시설 확충 등 실제 운영상의 우려 존재
 - ※ (수도권) 학점제 과목은 대학·학과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
- (내신 평가) 절대평가 시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나, 학력 저하 및 내신 부풀리기, 상대평가 적용 고1 부담 편중 가능
 - ※ (비수도권) 특목고 등 내신 성적의 불리함이 사라지는 경우,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 (통합형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범위로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하며, 이때 변별력 확보는 필수라 생각
- (논·서술형 수능) 선다형은 정답 찍기 문제가 있지만, 채점 기준의 공정성 논란, 사교육 과열 등으로 '수능' 논·서술형 도입 회의적
 - ※ 논·서술형이 학업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

□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3.9월말~10월초)

- (항목별 동의율*) ①수능 통합형 과목체제 73.0%, 통합사회·과학 61.2%, 심화수학 41.8%, ②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88.6%, 5등급제 76.6%
 - *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응답 비율
- (총평) 위 항목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416명), '긍정적'(680명) → 긍정 응답이 87.0%
 - ※ 매우 긍정적 416명(33.0%), 긍정적 680명(54.0%), 부정적 124명(9.9%), 매우 부정적 39명(3.1%)

학부모 의견	① 수능 개편			② 고교 내신 개편	
	통합형 과목체제	사회·과학 통합	심화수학 출제	절대·상대평가 병기	5등급제 전환
동의	595 (47.3%)	407 (32.4%)	242 (19.2%)	700 (55.6%)	587 (46.6%)
어느 정도 동의	324 (25.7%)	363 (28.8%)	284 (22.6%)	416 (33.0%)	377 (30.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4 (15.4%)	267 (21.2%)	389 (30.9%)	68 (5.4%)	160 (12.7%)
동의하지 않음	146 (11.6%)	222 (17.6%)	344 (27.3%)	75 (6.0%)	135 (10.7%)
합 계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 학부모 총 1,259명 설문 응답

2. 2023학년도 수능 만점자 비율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비율

영역	2022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국어	28명 (0.01%)	59명 (0.02%)	343명 (0.09%)	371명 (0.08%)
수학	2702명 (0.63%)	13명 (0.003%)	1,607명 (0.42%)	934명 (0.22%)
영어	2만 7830명 (6.25%)	2만 2,546명 (5.74%)	6만 1,729명 (15.97%)	3만 4,830명 (7.83%)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 인원과 비율임

최근 수능 국어, 수학 난이도

국어 : 화작/언매, 수학 : 확통/미적/기하

영역	연도	만점자 인원	만점자 비율	만점자 표준점수	1등급컷	2등급컷	3등급컷
국어	2023	371	0.08%	134	96/92	92/88	86/82
	2022	28	0.0063%	149	86/84	80/78	73/71
	2021	151	0.04%	144	88	82	74
	2020	777	0.16%	140	91	85	77
	2019	148	0.03%	150	84	78	70
	2018	3,214	0.61%	134	94	89	82
수학	2023	934	0.28%	145	88/84/88	79/75/78	70/66/69
	2022	2,702	0.63%	147	90/88/88	78/76/76	66/64/64
수학가	2021	971	0.70%	137	92	84	77
	2020	893	0.58%	134	92	85	80
	2019	655	0.39%	133	92	88	81
	2018	165	0.10%	130	92	88	84
수학나	2021	1,427	0.53%	137	92	85	77
	2020	661	0.21%	149	84	76	65
	2019	810	0.24%	139	88	84	73
	2018	362	0.11%	135	92	87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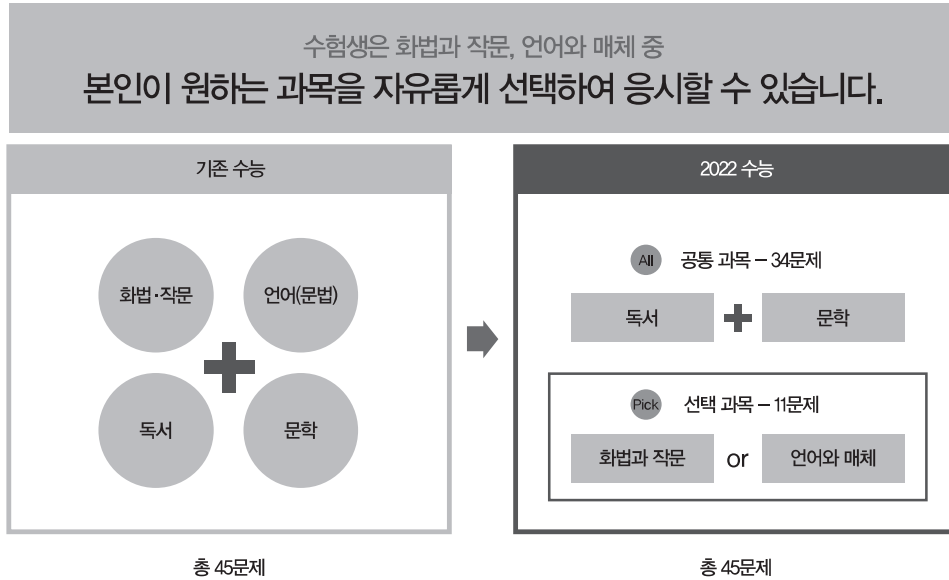
※2022, 2023 원점수 등급컷은 종로학원 기준

영어 등급별 인원 변화

등급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3-2022 변화		2021학년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1	34,380	7.83	27,830	6.25	7,000	1.58	53,053	12.66
2	83,069	18.67	96,441	21.64	-13,377	-2.97	69,051	16.48
3	96,760	21.75	112,119	25.16	-15,359	-3.41	82,701	19.74
4	83,952	18.87	82,647	18.55	1,305	0.32	77,774	18.56
5	59,531	13.38	50,395	11.31	9,136	2.07	56,744	13.54
6	39,168	8.80	35,032	7.86	4,136	0.94	37,649	8.98
7	25,323	5.69	23,685	5.32	1,638	0.37	23,474	5.60
8	16,212	3.64	14,049	3.16	2,163	0.49	14,419	3.44
9	6,047	1.36	3,364	0.76	2,683	0.60	4,166	0.99

3. 수능 국어 응시 과목

2022 수능 국어는 시험에서 응시하는 과목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두 가지로 나뉩니다.



4. 2024학년도 모의고사 일정(수능 11월 16일)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고3 대상 수능 모의고사 6회(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날짜	대상	시험영역	주관
3월	2023년 3월 23일(목)	1, 2,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서울특별시교육청
4월	2023년 4월 12일(수)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경기도교육청
6월	2023년 6월 1일(목)	3학년	전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부산광역시교육청
7월	2023년 7월 11일(화)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인천광역시교육청
9월	2023년 9월 6일(수)	3학년·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전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인천광역시교육청
10월	2023년 10월 12일(목)	3학년	전영역	서울특별시교육청
11월	2023년 11월 21일(화)	2학년	전영역	경기도교육청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수의과대학]

제시문 [1]

1. 수의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수의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 고등학교 재학 중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시문 [2]

지원자는 도심의 외곽에 위치한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 쪽에서 고라니가 나타나 가꾸어 놓은 채소를 먹고 텃밭을 헤집어 놓았다. 마을 앞길에서는 이웃집 차량과 고라니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구청에 고라니를 없애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에서는 허가받은 엽사 (사냥꾼)를 고용하여 마을에 출몰하는 고라니를 사살하려고 하고 있다.

지원자는

- 1)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구청에 신고한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 3) 구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시문 [3]

농촌봉사 참여를 하고 있던 법과대학생 민수와 수의과대학생 영희는 축사에서 젓소가 힘겹게 송아지를 출산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다. 영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젓소의 출산을 도와주려 하였다. 이때 민수는 “너는 아직 수의사도 아니고 젓소는 다른 집 재산인데, 송아지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원자가 영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시문 [4]

지원자는

- 1) 수의사가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 2)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 3) 수의과대학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 4)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전염병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시문 [1]

다음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 보십시오.

투명성은 오늘날의 예술—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가치다. 투명성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여러 층위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예술 창작은 현대인의 삶에서 주된 고민거리인 과잉의 법칙을 강화할 뿐이다. 고급 예술이 귀했던 예전에는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을 지적 사고나 문화에 더이상 동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현대 시대의 문화는 무절제한 과잉 생산에 기초하며 복잡한 도시 환경에 폭격을 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감각적 경험의 예리함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현대 생활의 물질적 풍요 그리고 견잡을 수 없는 혼잡함 역시 우리의 감각 기관을 무디게 만든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술작품 속에 있는 것 이상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짜내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쳐내서 조금이라도 실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예술작품(그리고 거기에서 유추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비평의 기능도 예술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어떻게 예술작품이 됐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시문 [2]

복잡한 지하철의 교통약자 배려석 앞에서 한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8세): (빈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비었는데 앉으면 안 돼?

아빠: 안 돼, 여기는 장애인,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 앉는 자리야.

엄마: 그냥 앉아. 한 정거장만 갈 거니까.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오시면 양보하면 되지.

아동: ㉠ 아빠, 그런데 나도 눈이 나쁘잖아.

제시문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나)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었다.

*무지한 질문: 굳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질문

제시문 [4]

평생을 노동자의 건강에 관하여 연구해 온 퀘백대학교의 캐런 매싱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의사들은 테니스엘보라고도 알려진 팔꿈치 관절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테니스를 자주 쳐서 생긴 결과라고 자신 있게 진단한다. 그러나 그 질환이 주당 50 시간씩 전선을 잡아당기고 벗겨내는 업무를 해도 생긴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의사들이 많다. 의사들은 테니스를 자주 치기 때문에 테니스엘보는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전선 피복을 벗겨내는 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제시문 [5]

다음은 2020년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른 A 질환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1만 명 당 이 질환이 진단되는 환자 수는 어느 국가나 동일하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1분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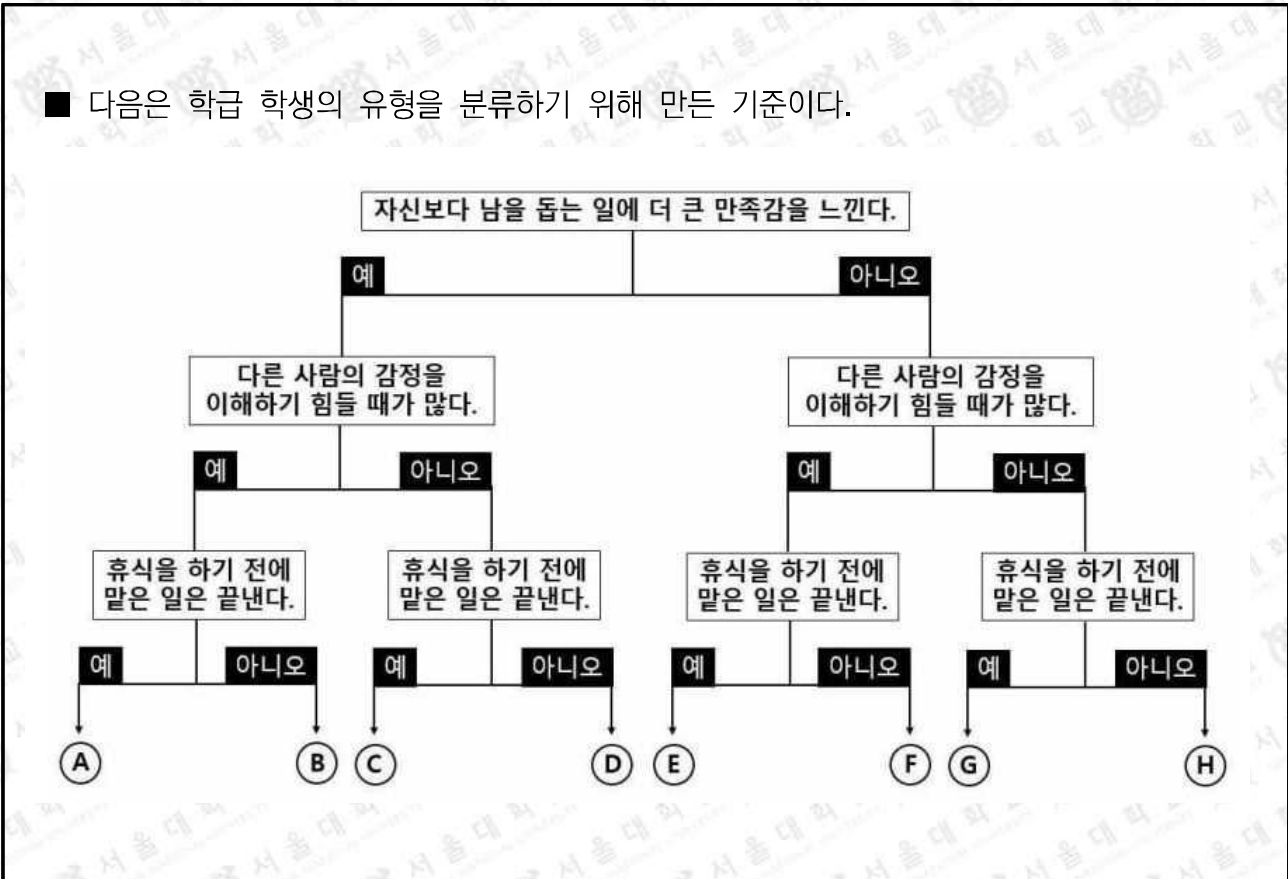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국가	중고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진단 시 평균 나이		31개월	24개월	21개월	14개월
진단 시 병의 중증도	초기	14%	27%	50%	66%
	중기	43%	54%	45%	34%
	말기	43%	19%	5%	1%
3년 생존률		57%	80%	91%	99%

제시문 [6]

선우는 이번 일요일에 봉사 활동을 할 곳을 알아보던 중에 며칠전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 정리를 돕는 봉사자를 구하는 공고를 확인하였다. 봉사 활동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4 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마침, 선우는 다음 달에 있을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친구 4명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첫 모임을 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 침수된 집 정리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제시문 [7]

■ 다음은 학급 학생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다.



제시문 [8]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네가 올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네가 금 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굶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약만도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제시문 [9]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내가 나의 우선순위를 더 잘 인식한다면, _____.
2.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_____.
3. 내가 나의 행동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진다면, _____.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학사 · 전문석사 통합과정]

제시문 [1]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식(食)문화'가 전 세계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밥때가 되면 가족끼리만 식사하고 집에 놀러 온 손님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경험담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다.

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문화권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적 있나?'라는 질문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한 작성자가 "스웨덴 친구 집에 들러 그의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불렀다"며 "그러자 친구는 나에게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가족끼리만 밥을 먹었다"고 답변을 남겼다.

- 조선일보 기사 일부 발췌 -

제시문 [2]

2021년 1월 27일 정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건강 위해 물질 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 중 핵심 사안으로 장기적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A는 "건강을 위한 것이니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 부담이 된다면 흡연량을 줄이면 될 것이다. 금연 시도도 늘어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B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담배 가격이 올라도 못 끊는다. 그냥 세금을 더 걷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결국 건강 증진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시문 [3]

■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출처 :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칙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제시문 [4]

-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 치과의사 외 직업을 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업을 택하겠으며 그 이유는?
- 치과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 2】 아래의 제시문 (가)(나)를 읽은 후 주어진 그림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1870~1880년대는 제정러시아의 정치적 격변기였다. 짜르였던 알렉산더 2세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양한 혁명가집단이 성장했다. 그들은 인민의 권력을 인정하면서 제정 폐지를 주장했다. 짜르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일상적이었다. 1881년 테러조직 나로드나야 볼리야(Narodnaya Volya)는 짜르 암살에 성공했다. 그의 뒤를 이은 알렉산더 3세는 내부대신 드미트리 톨스토이 공작과 함께 무정부주의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책을 집행했고, 그 결과 테러리즘과 특별한 관계가 없던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당했다.

일리아 레핀이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Unexpected Visitor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1884-1888)”이다. 오랜 유배를 마치고서 집에 돌아온 지저분하고 작달만한 남성과 그를 맞이하는 가족이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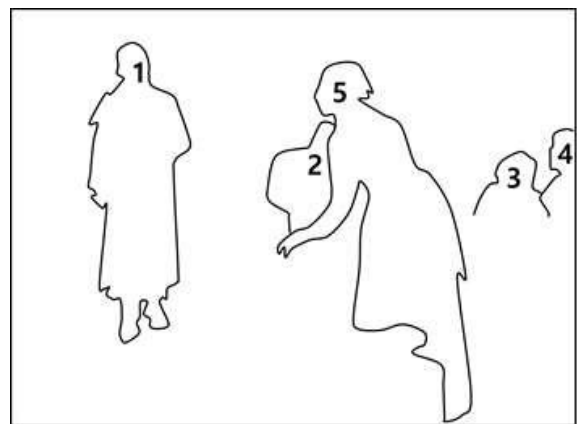
[제시문 나]

미술 작품 속 사람의 몸짓 언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손가락의 자세, 손의 움직임, 팔의 위치, 머리의 기울어짐, 얼굴 표정, 다리의 위치, 몸의 전반적인 자세를 따로따로 보면서, 인체의 각 부위를 차례로 훑는 것이다. 이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좀 무미건조하고 학술적이다. 그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몸짓 언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보는 쪽이 더 얻는 것이 많다. 그 몸짓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일까? 어떤 감정을 그려내는 것일까?

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눈빛 표정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각신호를 전달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의 기분을 알려준다. ... 흥채 위 또는 아래에 흰자위가 드러날 만큼 눈을 크게 뜨는 것은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내는 기본 반응이다. 이 동작은 눈의 시계를 넓히고 시각 자극의 반응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눈의 자동 반응을 적지 않게 이용하여 의도적이고 '연출된' 놀란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

【문제 2-1】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번호 2~4)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지 그림에 묘사된 표정과 몸짓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특히 검은 옷을 입은 여성(번호 5)의 표정은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 것으로 짐작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 해당 그림은 별도 자료 참조

【문제 2-2】

그림 속의 남성 (번호 1)은 어떤 감정일지와 그가 가족에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가족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시오. (10점)



수화·네이
데이 크
T. 200-4080

살롱하임



프리엠요가



씨앤에이
눈술

김종은

서울대학교 의대 수시
수석 입학 축하합니다.

축! 2024학년도
명덕외고 서울대 수시
구술면접 방과후 특강
대치본원 여성오원장팀 출강



(주)C&A논술
씨앤에이논술

축! 2024학년도
대일외고 서울대 수시
구술면접 방과후 특강
대치본원 여성오원장팀 출강



(주)C&A논술
씨앤에이논술